

배구의 계절 V리그 개막... ‘연경 천하’ 끝난 여자부 지각 변동



남자부 현대캐피탈·대한항공 2강 예상

페퍼스, 새 외국인 조이·시마무라 활약 기대

드디어 프로배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2025-2026시즌 V리그가 18일 오후 4시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리는 여자부 디펜딩 챔피언 흥국생명과의 시즌 챔피언결정전 진출팀 정관장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월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남자부는 이날 예정됐던 챔피언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 간 대결이 국제배구연맹(FIVB)의 클럽 시즌 규정 탓에 내년 3월 19일로 미뤄지면서 20일 한국전력-우리카드 대결로 새 시즌을 연다. 7개 팀이 참가하는 남녀부 모두 정규리그 6라운드 동안 팀당 36경기, 총 126경기를 치른다. 정규리그는 내년 3월 19일 현대캐피탈-대한항공 간 1라운드 경기를 끝으로 종료된다. 월요일을 빼고 매주 엿새간 팬들을 찾아가며, 오는 20일에만 한국전력-우리카드전이 월요일 경기로 펼쳐진다. 내년 3월 24일과 25일 남녀부 각각 정규리그 3위와 4위 간 단판 승부의 준플레이오프(준PO)가 열린다. 3, 4위 간 승점 차가 4이상이면 열리지 않는다. 같은 달 26일부터 정규리그 2위가 3위 또는 준PO 승리 팀과 3전 2승제의 플레이오프를 벌인다. 리그 우승팀을 가리는 남녀부 챔피언전(5전 3승제)은 4월 1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개최된다. 새 시즌 V리그 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다. 흥행 보증수표였던 ‘배구 여제’ 김연경이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해 관중 동원에 차질이 예상된다. 또 V리그 흥행에 도움이 되는 남녀 국가대표팀의 국제대회 성적도 좋지 않았다. 남자 대표팀은 11년 만에 출전한 FIVB 세계선수권에서 3전 전패로 예선 탈락했고, 여자 대표팀

역시 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1승 11패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으며 잔류에 실패했다. 설상가상으로 V리그의 전초전인 여수·농협컵(컵대회) 때는 배구연맹의 규정 미숙지 탓에 FIVB의 제동으로 해외 초청팀과 외국인 선수를 뺀 채 ‘반쪽 대회’로 치렀다. 남녀부 모두 업그레이드된 경기력으로 돌아선 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밖에 없다. 남자부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2강’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경쟁 속에 KB손해보험, 한국전력, OK저축은행의 3중, 우리카드, 삼성화재의 2약 구도가 예상된다. 여자부는 남녀부와 달리 새 시즌 판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통합우승을 달성했던 흥국생명과 챔피언전 진출팀 정관장, 정규리그 2위를 차지한 현대건설 등 세 팀의 전력 누수 속에 중하위권이었던 IBK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의 약진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여자부 7개 구단 중 주목받는 팀은 기업은행과 도로공사다. 기업은행은 지난 시즌 후 도로공사에서 현금 트레이드로 ‘최리’ (최고 리베로) 임명옥을 영입해 수비를 강화했다. 또 재계약한 빅토리아 댄착(등록명 빅토리아), 아시아 쿼터 알리사 킨켈라, 여자 대표팀의 주축으로 활약한 옥서영까지 화려한 공격력을 자랑한다. 도로공사 역시 검증된 외국인 거포 레티치아 모마 바스코(등록명 모마)와 아시아 쿼터 타나차 쑥숏(등록명 타나차),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 강소휘까지 막강한 공격 삼각편대를 구축했다.



2025-2026 시즌 V리그가 18일 개막해 6개월 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새 외국인 조이 웨더링턴을 앞세운 페퍼저축은행 시페퍼스는 최하위 탈출을 노린다. 지난 9월 컵대회에서 공격에 성공한 뒤 기뻐하는 페퍼스 선수들. (KOVO 제공)

아울러 지난 시즌 득점 1위에 오른 ‘쿠바 특급’ 지젤 실바(등록명 실바)가 건재한 GS칼텍스도 3강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시즌 최하위에 그쳤던 페퍼저축은행은 컵대

회 때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외국인 드래프트에서 사실상 1순위로 뽑은 조이 웨더링턴(등록명 조이)과 세계선수권에서 일본 국가대표로 맹활약했던 베테랑 미들 블로커 시마무라 하루요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새 시즌에는 지난 시즌 논란이 됐던 중간밸리 판독 규정이 폐지되고 그린카드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 ‘목송그룹 여자조정선수단’ 창단...첫 실업팀 구성

광주체고 출신 5명 선수로 구성

광주에 여자조정선수단이 창단했다. 광주시체육회가 14일 오후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전갑수 체육회장, 이명식 목송그룹 회장, 이기흥 목송그룹 총괄사장, 광주시조정협회, 선수단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송그룹 여자조정선수단 창단식’을 열었다. 팀은 정재수 단장을 필두로 김정민·서에서(이상 시체육회 우수선수), 김은유(전 총주시정) 그리고 ‘국가대표’ 김지선(광주체고 졸업예정) 등 광주체고 출신 5명으로 구성됐다. 감독은 채용예정이다. 광주 조정은 광주체고·고 출신의 뛰어난 선수들을 배출해왔지만 대학·실업팀이 없어 연계 육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 시즌 시체육회와 목송그룹이 체육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은 뒤 창단 결실을 맺었다. 조정선수단은 광주체고를 정상에 올린 멤버들



목송그룹 여자조정선수단이 14일 광주시체육회 체육회관에서 창단식을 열었다. 김은유(왼쪽부터), 서에서, 김영삼 사무처장, 전갑수 체육회장, 이명식 목송그룹 회장, 정재수 조정선수단장, 김정민, 김지선 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3년 제104회 전남체전에서 금메달 4개, 제105회 경남체전에서는 쿼터폴스컬 등 여자부 전 종목을 석권하며 광주를 알렸다. 제66회 전국조정선수권 등 다수의 전국대회에서도 금메달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그동안 광주에 실업팀이 없어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됐다”며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선수단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사우디 ‘우승 상금 85억원’ 테니스 이벤트 대회 개최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이 주관하는 테니스 이벤트 대회가 올해도 막대한 상금을 내걸고 개최된다. 15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식스 킹스 슬램은 총상금 규모가 1350만달러, 한국 돈으로 192억5000만원에 이른다. 선수 6명이 출전하며 대회에 나오기만 해도 상금 150만달러(약 21억4000만원)가 보장된다. 우승하면 상금이 600만달러, 85억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 올해 US오픈 단식 우승 상금이 500만달러였고,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주관하는 ‘돈 잔치’로 유명한 LIV 골프도 우승 상금은 400만달러다. 올해 대회에는 카를로스 알카라스(1위·스페인), 안니코 신네트(2위·이탈리아), 알렉산더 츠베레프(3위·독일), 테일러 프리츠(4위·미국), 노바크 조코비치(5위·세르비아), 스테파노스 치치

파스(24위·그리스) 등 세계 톱 랭커들이 대거 출격한다.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공식 대회가 아닌 이벤트 형식의 대회인데도 출전 선수 면면이 화려하다. 지난해 1회 대회에서는 결승에서 신네트가 알카라스를 2-1(6-7<5-7> 6-3 6-3)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또 3-4위전에서는 조코비치가 라파엘 나달(은퇴·스페인)을 물리쳤다. 올해 대회에서는 알카라스와 조코비치가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했고, 신네트가 치치파스와 1회전에서 이기면 조코비치와 준결승에서 만나는 대진이다. /연합뉴스

흥국생명 김연경 ‘등번호 10번’ 영구 결번

V리그 4번째 주인공

한국 배구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했던 김연경(37)의 등번호 10번이 영구 결번으로 지정된다. 흥국생명은 오는 18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정관장과 2025-2026시즌 프로배구 정규리그 개막 경기를 치르고 나서 김연경의 은퇴식을 연다. 이때 김연경의 영구 결번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흥국생명은 지난 시즌 후 은퇴를 선언한 김연경의 은퇴식과 영구 결번식 날짜를 새 시즌 홈 개막전으로 잡고 준비해왔다. 김연경의 등번호 10번은 영구 결번으로 남는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간판이자 한국 여자배구의 레전드였다. 그는 2005-2006시즌 V리그에 데뷔한 이후 국내 무대에서 총 여덟 시즌을 뛰었다. 데뷔 첫해 소속팀 흥국생명을 통합우승으로 이끌고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와 챔피언결정전 MVP, 신인상, 득점상, 공격상, 서브상을 모조리 휩쓸며 한국 배구 역사를 새로 썼다. 그는 국내에서 뛴 네 시즌 동안 흥국생명의 정규리그 우승 3회, 챔피언결정전 우승 3회, 통합우승 2연패를 견인했다. 2008-2009시즌 종료 후 해외 무대 생활을 거친 김연경은 2020-2021시즌부터 2024-2025시즌까지 네 시즌을 V리그에서 뛰었다. 은퇴 시즌이었던 2024-2025시즌에는 흥국생명의 통합우승을 이끈 뒤 챔피언결정전 MVP에 이어 정규리그 MVP를 석권하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정규리그 MVP에 일곱 번 올랐고, 챔피언



MVP도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24-2025시즌 네 차례 차지했다. 그는 V리그에서 241경기밖에 뛰지 않았지만, 최소 경기 5000득점을 작성하는 등 통산 득점 부문 6위(5314점)에 올라 있고, 통산 공격 성공률 45.15%를 기록했다. 김연경은 공격 못지않게 수비에서도 안정감 있는 리시브 능력을 보이며 코트 안에서 흥국생명의 중심 역할을 했다. 또 여자 국가대표팀의 주축으로도 활약하며 2012 런던 올림픽에 이어 2020 도쿄 올림픽에서도 한국의 4강 진출에 앞장섰다. 2005년 출범한 V리그에서 영구 결번은 김연경이 네 번째다. 남자부 OK저축은행은 2015-2016시즌까지 두 시즌 연속 챔피언전으로 이끌었던 ‘쿠바 특급’ 로버트 랜디 시몬(등록명 시몬)의 등번호 13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다. 이어 여자부 IBK기업은행이 2017년 10월 18일 세터 김사니의 은퇴식을 치르면서 등번호 9번을 영구 결번으로 정했다. 지난 시즌에는 현대캐피탈이 은퇴식을 치른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남자 배구의 레전드였던 문성민의 등번호 15번을 영구 결번으로 남겼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399회 정기연주회

'Fall in love with Opera'

일시 : 2025-10-17(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 천영록 개인전

일시 : 2025-09-19(금) ~ 2025-10-26(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